

남부지방 극심한 가뭄...물 공급체계 조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국가물관리위원회, 생활·공업용수 공급 대책안 마련 주암댐 용수, 여수 등 6개 시·군 공급...영산강 물, 무안·신안·함평 확대

올해 남부지방에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다시금 더 큰 가뭄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극한 가뭄이 반복될 수 있어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물공급 체계를 조정하고, 하수 재이용 등을 대책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우선, 가뭄 발생시 비상 대책으로 장흥댐에서 주암댐 광역 상수도까지 도수관로를 설치해 6개 시·군에 공급되는 주암댐 용수 일부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주암댐 여유 물량을 여수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도 설치한다.

수어댐에서 물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공

급시설도 구축한다.

여수 하수처리장에 재이용수 생산 시설을 설치해, LG화학·GS칼텍스·여천NCC 등에 공급하고, 해수담수화 기술로 여수산단에 부족한 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섬 지역 대상으로는 하루 830t 물공급이 가능한 지하수 저류댐과 하루 120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주요 가뭄 대책으로 신규 수자원 개발, 수계간 용수 연계 활용에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 가뭄 취약지에 저수지·양수장을 신설해 1년에 3100만t의 신규 용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암 월악, 강진 월남, 신안 팔금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저수지·양수장 부분 준공을 통해 조기 급수도 추진한다.

가뭄시 영산강의 물을 활용해 물 부족 문제도 해소한다. 영산강 하구둑의 물을 무안·신안·함평 등에 공급해 급수 면적을 확대하고, 죽산보의 물을 물을 나누호로 공급해 연간 1억 200만t의 물을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광주시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자체의 물관리 방향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주암댐과 장흥댐 연계, 영산강 4대호와 상류 농업용 저수지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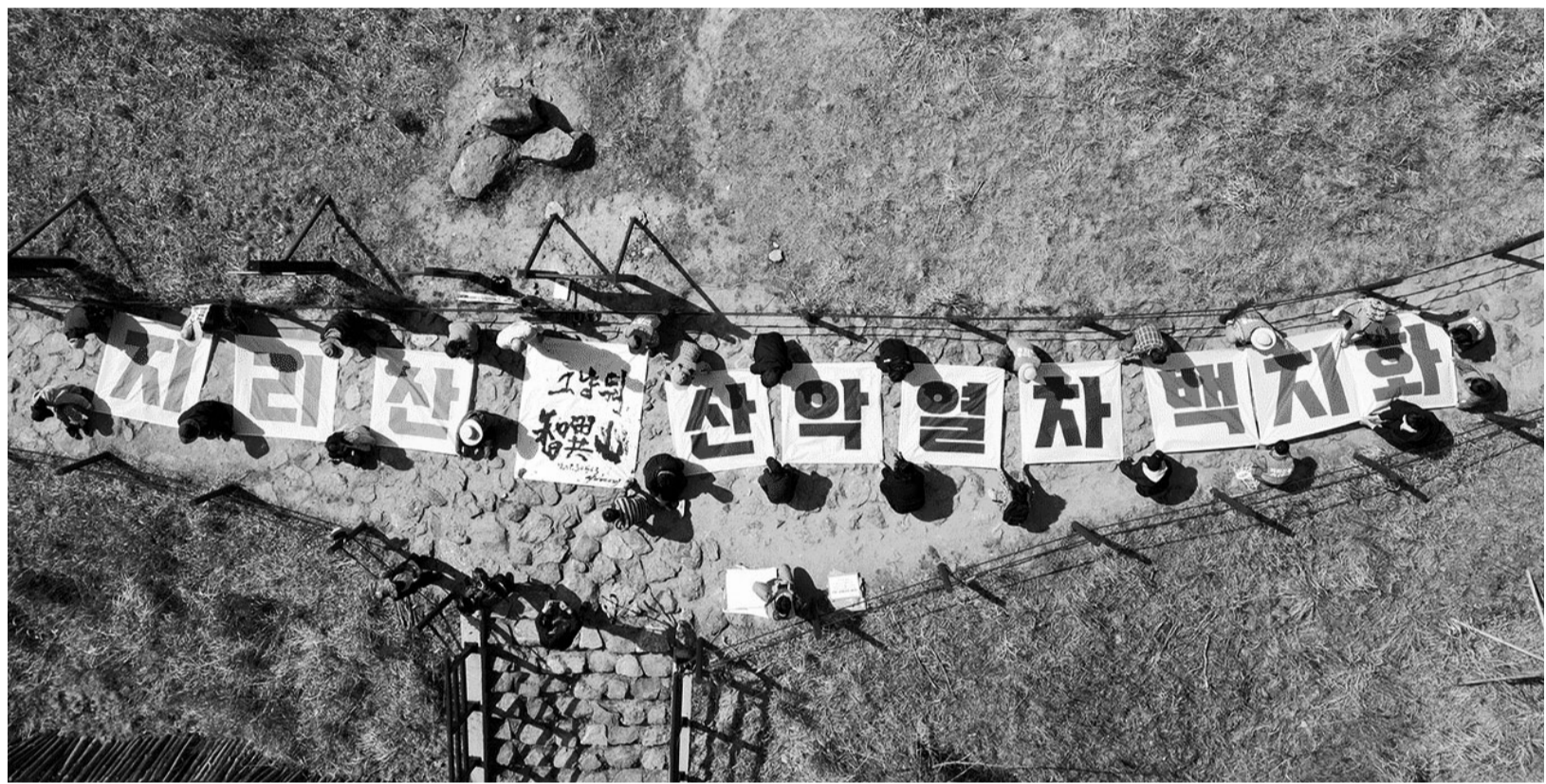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장흥댐에 여유량이 생기는 만큼, 이 여유량을 활용해 주암댐 공급물량의 일부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효율적 물 공급보다

물 회복력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었다.

최종진 국토환경연구원소장은 "물 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 그릇이 팔라버리는 게 문제"라며 "통합 물관리계획과 연계한 중소유역별 물 순환 계획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영산강을 비상상수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수자원의 기능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처럼 수자원의 물 공급 및 이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재완 광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존 동북댐과 주암댐에 의존했던 물공급 체계를 다변화하고, 비상시 영산강 하천수 취수와 농업용 댐 연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지리산 산악열차사업 백지화하라” 광주·전남 환경시민단체들을 비롯한 호남권 환경단체들이 지리산 정령치에서 최근 남원시가 추진 하고 있는 산악열차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남지역 골프장 농약 사용량 전국 4번째

전국, 지난해보다 5% 증가...경기도 68.3t 가장 많이 사용

전남 지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8일 전국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농약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전국의 골프장 545곳에서 사용한 총 농약사용량은 213t으로 전년도 보다 5% (11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3t으로 전체 농약사용량의 32%를 차지했다. 강원도(25t), 경상북도(17.5t), 전남(17.3t), 제주(17.2t)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프장은 오시아노(전남, 45.91kg/ha)였으며,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강원, 45.89kg/

ha), 파인비치골프링크스(전남, 44.95kg/ha), 포도컨트리클럽(경북, 41.48kg/ha), 오너스골프클럽(강원, 33.62kg/ha)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곳에 대해서는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과도한 농약 사용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골프장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골프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가 맞춤형 훈련생 모집에 나선다.

센터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사회적 비스플랫폼 '수다 커머스'를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쿠팡 직무 훈련 분야는 판매자 보상처리이며, 컴퓨터활용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배우게 된다.

훈련은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5주간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재택 방식으로 이뤄지며 예상 급여는 세전 월 210만 원이다.

'수다커머스'는 디지털기기 강사 부분으로, 수

다커머스 플랫폼 이해와 디지털 기기 학습·체험 등을 훈련한다.

훈련은 5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훈련 후 입사 시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되며 예상 급여는 세전 월 178만 원이다.

접수는 쿠팡은 21일까지, 이커머스는 25일까지이다. 서류 접수로 응시 가능 하며 두 곳 모두 5명을 모집한다. 면접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된다.

또 훈련 기간 중 최종 적격 심사가 진행되며 면접전형 합격자는 맞춤형 훈련 수료 후 채용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가정의 달’ 영암 월출산으로 봄나들이 가요”

국립공원공단, 부안 변산반도·태안 해안국립공원 등 5곳 추천

국립공원공단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봄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다섯 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국립공원은 영암 월출산, 경북 청송 주왕산, 전북 부안 변산반도, 충북 제천 월악산, 충남 태안 해안 국립공원 등이다.

이곳들은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 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족 모두가 탐방로

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좋다는 것이 추천의 이유다.

특히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있는 대표 사찰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 13호) 경내에는 국보와 보물 6점을 있어, 문화재를 보고 걸으며 남도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다. 무위사에서 녹차밭으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월출산 아래로 넓게 펼쳐진 차밭을 볼 수 있다. 강진 녹차밭은 밤과 낮의 온도 차가

크고 안개가 많아 차 재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어 뽕의 맛이 적고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영암군 영암읍 쪽에 있는 월출산 유채꽃밭으로 가면 약 100만 평 규모로 펼쳐진 노란 유채꽃을 만날 수 있다. 유채꽃 너머로 우뚝 솟은 월출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아 포토존으로 꼽힌다. 인근 천황지구 탐방로 입구에서 1시간 정도 오르면 유채꽃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름다리도 건너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추천한 국립공원은 가족들이 봄을 느끼며 추억만들기 좋은 곳"이라며 "국립공원과 인근의 관광지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